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개최

국립무형유산원 ·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9월 1~2일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년의 성과와 전망’ 주제 진행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9월 1~2일 양일간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김지성)와 ‘2023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7년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각국 무형유산의 현황을 공유하고, 이와 함께 보존·전승을 위한 협력적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학술 행사다.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20년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17개국 30여 명의 무형유산 석학과 유네스코 문화담당관 등을 비롯해 아태지역 회원국 및 다양한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다.
2003년 협약 이후 20년 동안 각국의 협약이행 및 무형유산 보호노력에 대한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

이다.
참가 신청은 포럼 공식 누리집(https://ichworldforum.org)을 통해 가능하다.
행사는 당일 국립무형유산원 및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유튜브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안내는 국립무형유산원(063-280-1512)과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포럼 사무국(063-230-97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동체의 문화적 다양성 존중, 문화와 문화 간의 대화와 평화 유지 등 그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수행해 온 역할을 조명하고,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2023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포스터

국립민속국악원, 몽골 세계유목민문화축제로 한국대표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세계유목민문화축제(Nomads WCF)에서 한국대표 공연을 펼쳐 현지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몽골 세계유목민문화축제는 세계 11개국에서 초대된 1,000여명의 예술인과 1만명의 출연진이 참가하여 교류하는 국제적인 문화행사로, 한국 대표로 참가한 국립민속국악원은 개막식, 본 공연, 폐막식까지 주요 행사에 참여했다.

특히 Nuudel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 본 공연에서는 기악곡 ‘깃길’ ‘겔을마다 꽃이 피소서’와 경상·전라 토속민요, 그리고 서울극 ‘대신무’ 등 한국 민속예술의 진수를 보여줄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몽골과 세계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폐막식에서는 김중현 국립민속국악원장이 한국을 대표해 세계유목민문화축제의 감사 트로피를 수여 받으며 7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으며, 김중현 원장은 “앞으로도 국제적인 문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문화 교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 가위박물관, 전북 최초 브레드이발소 팝업스토어 개최

진안군은 가위박물관 개관 7주년을 맞이하여 이발가위 연계한 ‘브레드이발소 in 가위박물관’ 특별기획전시 18일부터 오는 9월 24일까지 열린다.
‘브레드이발소’는 천재 이발사 브레드와 그의 조수 윌크가 베이커리타운의 디저트를 꾸며주는 디지털 애니메이션이다.
전시에서는 이발가위 전시를 비롯하여 브레드이발소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 플레이하우스 등으로 작은 전시 공간에 알찬 구성으로 전시를 기획했다.
군은 더 즐거운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캐릭터 컬러링, 배지만들기, 캐릭터 장난감 놀이 공간 등 다채로운 체험을 경험할 수 있으며, 평일 방문객은 캐릭터 기념품 증정 이벤트(소진시 까지)도 마련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공예품전시관, ‘호기로운 호사원’ 시즌2 이모티콘 배포

호랑이를 캐릭터화 한 이모티콘이 시민들을 만난다.
지난 25일 전주공예품전시관에 따르면 ‘호기로운 호사원’ 시즌2 이모티콘 16종을 개발, 무료 배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호사원 이모티콘은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전주공예품전시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배포된다. 이용자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한 뒤 ‘호기로운 호사원’ 시즌2 이모티콘 16종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출시한 ‘호기로운 호사원’은 민화 속 가치호랑이를 모티브로 개발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자체 캐릭터다. 특히 MZ 세대 가치호랑이 콘셉트로 제작된 조형물 16종은 현재 전주공예품전시관 내·외부 곳곳에 배치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한편 이모티콘은 ‘전주공예품전시관 카카오

톡 채널을 추가한 5만 명에게 무료 배포되며, 다운로드한 날로부터 30일간 사용 가능하다.
더불어 이모티콘 시즌2 출시 이벤트도 진행된다. 호사원을 찍어 SNS에 공유하는 ‘호사원을 찾아라’ 이벤트를 상시 진행, 경품으로 호사원 한지 봉투와 스티커를 현장에서 바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김도영 원장은 “MZ세대를 대변하는 친근한 호사원을 통해 전통 문화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호사원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청목미술관 기획전시 전북의 불꽃IV전

한지 조형 작가 4명 참여 한지 위상 높이기 위해 기획

청목미술관(이사장 박형식)이 주관하는 전북의 불꽃Ⅳ-‘낙, 그 숨결을 느끼다.’전이 열린다.
올해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청목미술관은 지난 15일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일환으로 전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신진 시각 예술가를 다룬 ‘전북의 불꽃Ⅲ전’을 개최했다. 오프닝 행사로 진행된 아티스트 토크 및 라이브드로잉 프로그램은 관람객의 큰 호응으로 연장 운영됐다.
이에 따르면 전북의 불꽃Ⅲ전에 이어 청목미술관이 아닌 차게 준비한 전북의 불꽃Ⅳ-‘낙, 그 숨결을 느끼다.’전은 4명의 한지 조형 작가 김영란, 박동삼, 유봉희, 최계영이 참여해 한지의 전통성, 우수성, 그리고 예술적 가치를 알리고 전주 한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청목미술관 김선남 학예실장은 “전북의 시각 예술계는 역량을 펼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원과 체제의 유기적 연결이 부족하기에 전시를 통해 지역의 훌륭한 시각 예술가를 조명하고 작가와 작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전북에서 예술혼을 불태우며 사회를 밝히고, 시대를 일깨우고자 하는 ‘불꽃’ 같은 존재인 작가를 조명하여 그들의 집념이 담긴 작업 세계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의 불꽃Ⅳ-‘낙, 그 숨결을 느끼다.’전은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목미술관(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32, 청목빌딩 1층)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특히 8월 29일 오후 4시에는 개막식 행사로서 작가와의 만남 및 유봉희 작가의 현장 드로잉이 펼쳐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예술인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순항’

전북문화관광재단,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일사천리’ 사업 호응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지난 7월 순항 문인협회회를 시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사천리’ 사업이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14개 시·군의 지리적 접근성이 열악한 예술인들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분야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은 전주 시내권에 있는 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예술활동증명신청 행정대행 서비스를 현장에서 받아볼 수 있다.
지난 1~3회차는 순창군립도서관과 익산 그라포스 사진교육원, 정읍시에서 각각 진행, 지역 예술인들 대상으로 재단 사업 안내 및 행정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4차는 고창군 신재효관소리공원 세미나실에서 진행,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한국미술협회 고창지부 권애란 지부장은 “찾아가는 안내서비스 일사천리를 통해 예술



활동증명 관련 행정 대행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각종 예술인 지원사업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도 알게 돼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 마련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일사천리’ 참여를 원하는 도내 예술단체 및 예술인들은 이메일(jb_7447@hammail.net) 신청 또는 전라북도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3)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